

학 회 소 식

I. 정례학술발표회

제37회 정례학술발표회 : 耕巖 金容旭教授 停年退任紀念

일시 : 1996년 1월 26일

장소 : 부산대학교 인덕관

제1주제 : 唐代的 律令과 身分制

발표 : 전영섭(부산대학교 사학과 강사)

제2주제 : 高麗時代의 姓氏와 家族法

발표 : 손현경(부산대학교 박사)

제3주제 : 나의 法制史研究 37년

발표 : 김용욱(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)

제4주제 : 韓國法史學의 研究課題

발표 : 심희기(영남대학교 법학부 교수)

제38회 정례학술발표회

일시 : 1996년 5월 4일(토)

장소 : 서울대 호암교수회관

제1주제 : 문화형태론과 법문화

발표 : 최병조(서울대 법대 교수)

제2주제 : 바이마르공화국과 이익단체의 헌법적 제도화

발표 : 송석운(대전대 법학과 교수)

제3주제 : 법사학연구의 현황과 전망

1. 한국법제사 부문 : 박병호(서울대 법대 교수)
2. 서양법제사 부문 : 윤철홍(숭실대 법대 교수)
3. 중국법제사 부문 : 임대희(경북대 사범대 교수)
4. 일본법제사 부문 : 김창록(부산대 법대 교수)

제39회 정례학술발표회 : 近現代 全南地域에 대한 法史的 接近

일시 : 1996년 6월 28일(금) 29일(토)

장소 : 전남대학교 법대 103호 강당

6월 28일(금) 학 술 발 표

사회 : 심희기(영남대 법학과 교수)

제1주제 5·18 起訴의 法制史的 意義와 光州反政

발표 : 金池洙(서울대학교 법학박사)

토론 : 金昌祿(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)

제2주제 韓國都市計劃法制的 史的 變遷

발표 : 金光宇(전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교수)

토론 : 鄭肯植(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)

제3주제 法社會史 研究의 한 方法 : 일제하 順天 지역의 경험

발표 : 李喆雨(L.S.E. 법학박사)

토론 : 鄭根植(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)

제4주제 韓國 近代法史의 構想

발표 : 鄭鍾休(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)

토론 : 朴慶亮(순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)

6월 29일(토) 운주사 답사

안 내 : 이태호(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)

제40회 정례학술발표회

일시 : 1996년 10월 19일(토) 오후 2시~6시

장소 : 서울대학교 문화관 2층 국제회의실

제1주제 신석기시대 말기의 社會相과 復讐 慣行

— 崧澤 文化期の 墓葬의 분석을 중심으로 —

발표 : 홍기원(서울대 박사과정)

제2주제 韓國農地法制的 史的 展開와 展望

발표 : 정영화(서울시립대 강사)

제3주제 歷史에 있어서 自由와 統制 : 停年에 즈음하여

발표 : 박병호(서울대 명예교수)

II. 회원동정

* 金容旭 教授 停年退任紀念論文集 奉呈式

2월 23일(금) 耕巖 金容旭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리는 기념논문집 『韓國家族의 法과 歷史』의 봉정식이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. 이 자리에 친지, 후학 등 250 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. 그리고 韓國土地法學會에서는 『土地法學』 제11호를 정년기념호로 1995년 12월에 발간하였다.

* 朴秉濠 教授 停年退任紀念論文集 奉呈式

11월 23일(토) 韓國古文書學會 주최로 박병호 회장 정년퇴임기념 특집호 『古文書研究』 제9·10 합집 봉정식이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. 이 자리에 약 300 여명의 친지, 후학 등 하객이 참석하였으며 박병호회장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약속하여 후배학자들을 격려하였다. 그리고 박병호 회장이 그 간의 발표한 논문을 집성한 『近世의 法과 法思想』, 『家族法論集』의 출판을 함께 기념하였다.

- * 任大熙 회원(경북대 사범대 교수)은 중국형법사 연구를 위하여 日本 京都 大學校에 1년간 체류할 예정이다.
- * 鄭鍾休 회원(전남대 법대 교수)과 鄭宗燮 회원(건국대 법대 교수)은 연구를 위하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1년간 체류할 예정이다.
- * 崔鍾庫 회원(서울대 법대 교수)은 1996년 1월 4일에서 6월 25일까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연구교수로 체류하였다. 최교수는 “독일 통일 이후의 법사상의 변화”를 연구하면서 독일어판 『한국법 입문』을 저술하였고, <법과 미술>에 관한 강연을 여러 곳에서 하였다.
- * 韓京星 회원(양산전문대학 교수)은 동아대학교에서 「韓日 古代 律令體制의 比較經濟史的 研究」라는 논문으로 1996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.
- * 俞成國 회원은 연세대학교에서 「儒敎的 傳統社會의 赦免制度에 관한 研究」라는 논문으로 1997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.
- * 李鍾吉 회원은 서울대학교에서 「朝鮮後期 漁村社會의 所有關係에 관한 研究」라는 논문으로 1997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다.

【법사학 관련 신간안내】

- ◎ 李鍾日, 『大典會通研究 : 刑典 · 工典』, 한국법제연구원, 1996년 11월, 422면.

대전회통의 번역·주석의 마지막 편으로 풍부한 주석과 함께 권말에 원문을 영인하였다.

- ◎ 朴秉濠, 『近世의 法과 法思想』, 진원, 1996년 11월, 678면

1974년 韓國法制史攷 출판 이후 저자의 서울대학교 정년을 기념하여 33편의 논문을 제1편 법제사, 제2편 법사상, 제3편 고문서로 나누어 수록하였다.

- ◎ 李圭正, 『韓國法制史』, 국학자료원, 1996년, 662면

재야학자로 1960년대 이후 한국법제사에 대해 독자적으로 연구한 성과를 사후에 유고로 출판하였다. 한국법과 역사에 대한 저자의 독특한 시각을 느낄 수 있다.

- ◎ 한상범 편, 『일제 잔재, 무엇이 문제인가』, 법률행정연구원, 1996년 4월, 242면

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1995년에 개최된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 12편을 제1편 일제 잔재, 무엇이 문제인가, 제2편 일제 잔재의 뿌리 - 법제와 정치, 제3편 일제 잔재 청산의 법리론으로 구성하였다.

- ◎ 김효전, 『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』, 철학과 현실사, 1996년 8월, 561면.

저자의 주된 관심인 서구공법의 수용과정에 관한 논문집으로, 국제법의 수용, 영국, 미국, 독일, 프랑스 헌법이론의 수용에 대한 부분과 관련문헌을 수록한 것으로 저자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.

- ◎ 현승중 저, 조규창 증보, 『로마法』, 법문사, 1996년 3월, 246면.

현승중 회원이 저술한 로마법을 제자 조규창 교수가 증보한 저서로 로마법 원사와 민사소송법을 앞세우고 판택텐 체계에 따라 민법을 서술하였다.